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읽기 시즌1 - 2강 강의록
루크레티우스와 자연주의(55쪽)

0. 루크레티우스의 철학

(1) 루크레티우스 이전의 철학

-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주의와 스토아학파(자연주의) 철학 내용 :

① 논리학(논리적인 것) : 진실과 진리에 이르기 위한 지적 도구(방법-언어의 규칙)의 앎. 예컨대, 진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감각은 존재자들의 실재성의 유일하고 주요한 보증자로서 참된 것을 탐구하는 데 가장 확실한 안내자이다(에피쿠로스주의의 경우).

② 자연학(자연적인 것) : 자연의 원리와 자연 속에서 나의 위상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기 위한 앎. [우주/세계=원자들 +허공]

③ 윤리학(윤리적인 것) :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앎. 자연의 진리 인식과 그 귀결에 의한 앎은 행복에 필수불가결하다.

-스토아철학자들의 철학에 대한 동물적/식물적 비유 : 논리학=뼈대와 힘줄, 자연학=영혼, 윤리학=살과 근육./ 논리학=비옥한 밭의 견고한 울타리, 자연학=토양.과수, 윤리학=과일.

☞ 동서양의 공통된 사유방식 : [자연 → 천도/로고스-리(理)/이성 → 본성/덕(德)/법도 →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자 윤리와 행복의 길]

(2) 루크레티우스의 자연철학 :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루크레티우스(Titus Lucretius Carus, B.C. 90년대 전반~B.C. 50년대 중반경)는 BC 1세기에 활동한 고대 로마의 에피쿠로스학파의 시인·철학자, 44세에 자살 추정.

그의 저작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근대 정신 내지 근대적 세계관을 함축하는 철학적 대서사시이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물리학, 우주론, 윤리학을 전해주는 자료이다. 에피쿠로스(기원전 342~270년)의 핵심적인 생각과 가르침을 담고 있다. 가장 번뜩이는 빛인 먼지들의 기본적인 동요를 밝혀주는 햇빛(비가시적인 원자들의 미세한 운동을 인식케 하는 진리), 또는 영혼의 어둠을 성공적으로 일소하는 교훈시의 빛이 발하는 작품이다. 사물의 원리들에 대한 설명, 미리 세워진 의도에 따라 사물들의 본성을 규제한 최고의 지성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철학을 노래하고 있다.



▶ 마이클 버거스가 그린 루크레티우스(1682년 작)

가. 자연철학의 제1원리

그것의 첫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우리를 위한 시작점을 얻어야 한다. 즉 그 어떤 것도 신들의 뜻에 의해 무(無)로부터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로 그토록이나 두려움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 [중략]

여기에 다음 것이 덧붙여진다. 즉 자연은 각각의 것들을 다시금 그 자신의 알갱이로 해체한다는 것, 사물들을 결코 무(無)가 되도록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물이 그 최종적인 부분까지 필멸(必滅)의 것이라면, 각각의 사물은 갑자기 눈앞에서 채여 가서 소멸할 테니까. 그것의 부분들에서 해체를 준비하고, 결합을 풀어헤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필요치 않을 터이니까.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37~42쪽)

☞ 파르메니데스(B.C. 515/510~435?)의 전제 : 엘레아 학파의 창시자.

①‘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무로부터 생성이 나올 수 없고, 존재가 무로 소멸될 수 없다’- 부동의 일자(一者), 즉 하나의 존재는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완전한 동일함의 구체(球體) + 운동도 운동을 위한 공간도 없음. 탐구의 두 길. 존재는 생각될 수 있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비존재는 생각될 수 없고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②불완전한 감각은 오류의 원천이라서 이성적 사고만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생성변화는 사람의 불완전한 감각에 기인한 가상(illusion)에 불과하다.

나. 자연의 구성 요소

자연 전체는 그러므로, 그것이 자체적인 한에 있어서,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체들과 빈 공간에 있어서, 그 공간 안에 이 물체들이 놓여 있고, 거기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말이다. 왜냐하면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통된 감각이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일 감각에 대한 이 신뢰가 처음부터 굳게 다져져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성의 추론으로써 숨겨진 일들에 대해 확실히 알고자 할 때 기준으로 삼을 그 어떤 것도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빈 곳이라 부를 장소와 공간이 없다면, 물체들은 어디에도 놓여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어디로도 방향 잡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위에서 조금 전에 벌써 그대에게 보인 바 있다. 그 밖에는, 그대가 모든 물체로부터 구별되고 빈 공간들로부터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치 숫자상 세 번째로 발견되는 자연적 요소인 듯한 것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건 있으려면, 그것은 자체적인 무엇인가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55~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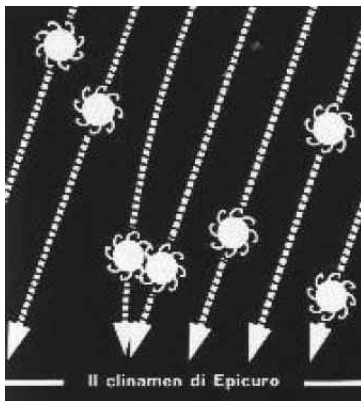
☞ 자연의 구성 요소 = 물체들 + 허공/빈 곳/공백/무(無)/비존재

다. 사물의 생성소멸의 변화와 운동의 근원

만일 그대가, 사물들의 기원이 멈춰 설 수 있으며, 멈춰 섬으로써 사물의 새로운 운동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길을 잃고 참된 이치로부터 멀리 방향하는 것이리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허공을 통하여 떠돌아다니므로, 사물들의 모든 기원은, 그것이 무게를 지님으로 해서, 아니면 때때로 다른 것의 충격에 의해 이동해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움직여진 것들은 흔히 서로 마주쳐 부딪혔을 때, 즉시 이리저리 서로에게서 튕겨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116~117쪽)

☞ 사물 생성의 근원 = 사물들의 운동(무게를 지닌 사물들의 이동과 충돌)

물체들이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허공을 통하여 곧장 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때, 아주 불특정한 시간, 불특정의 장소에서 자기 자리로부터 조금, 단지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할 수만 있을 정도로, 비껴났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기울어져 가 버릇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아래로 마치 빗방울처럼, 깊은 허공을 통하여 떨어질 것이고, 충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타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원들에게는, 그래서 자연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략] 끝으로, 만일 항상 모든 운동이 연결되어 있고, 새 운동은 옛 <운동으로부터> 정해진 순서를 좇아 생겨난다면, 그리고 기원들이, 원인이 원인을 무한한 시간부터 좇게 되지 않도록, 비껴남으로써 운명의 법을 깨뜨릴 운동의 어떤 시작을 이루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에서 이 자유의지가 온 땅에 걸쳐 동물들에게 생겨나 있는 것이며, 묻노니, 대체 어디에서 운명으로부터 빼앗아낸 이 의지가 생겨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쾌락이 각자를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공간적으로 정해진 자리에서가 아니라, 정신 자체가 이끌어간 그곳에서, 그때에 운동의 방향을 비껴 바꾸는 것일까? 왜냐하면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일들에 있어서 각자에게 자신의 의지가 시작을 제공하고, 거기서부터 운동이 사지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이다.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125~128쪽)



☞ 사물들의 생성소멸의 원인 = 사물들의 비껴남/이탈 경향(자유의지, 쾌락)
: 근대적 정신/세계관과 상통하는 부분.

- ① 입자들의 운동경로를 바꾸는 편위(클리나멘, clinamen; 자발적 운동능력)/비껴남이 없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연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자들은 허공의 수직 낙하 운동의 궤도에서 이탈한다. 이 편위 때문에 원자들은 '브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편위(clinamen)/비껴남이 없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자유의지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인과 연쇄의 단절을 통해 운명에서 벗어난 자유의지 때문에 생명체인 인간은 쾌락과 정신 자체가 이끄는 데로 방향을 바꾸어 행동/운동할 수 있다. 인간의 클리나멘으로서의 사유 또는 자유의지의 중요성과 사려깊음의 요청.

라. 윤리학 : 유물론적 쾌락론/행복론

하지만 더 달콤한 것은 없도다. 현자들의 가르침으로 높은 곳에/ 잘 구축된 평온한 거처를 취하고 있는 것보다./ 거기서 그대는 다른 이들을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이리저리 / 해매는 것과 삶의 길을 찾으며 방황하는 것./ 재치를 겨루고 고귀함을 다투는 것을./ 밤이 고 낮이고 두드러진 노력으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최고의 부에 오르려, 세상을 차지하려./ 오, 가련한 인간의 정신이여, 오, 맹목의 가슴이여!/ 어떠한 삶의 어둠 속에서, 얼마만한 위험 속에서/ 이 짧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본성은 자신을 위해 다른 것을 외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육체에서 고통이 떨어져 사라지는 것 외에는,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즐거운 감각을 누리는 것 외에는! / 그러므로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주 조금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 고통을 제거하는 정도./ 그리고 많은 기쁨을 펼쳐줄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또한 본성 자체는 이 따금이라도 그보다 더 은혜로운 것을 구하지 않는다.

(루크레티우스,『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강대진 옮김, 아카넷, 111~112쪽)

☞ 에피쿠로스적 의미의 쾌락 추구적인 삶

: 행복한 삶의 원리이자 목적인 볼루터스(voluptus)를 위해 순간적이고 부분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쾌락, 마음과 몸 전면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마음과 영혼의 평온한 삶(아타락시아, Ataraxia)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 = 육체적 고통의 사라짐 + 마음과 정신의 안정(걱정과 두려움 제거)=즐거움과 기쁨의 지속적인 증대**

-영혼의 의사인 에피쿠로스의 행복에 이르는 네 가지 처방 :

행복한 삶의 네 가지 원리들은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즉 도덕의 원자들에 해당한다.

- ❶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신들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 ❷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대상없는 공포이다. 죽으면 고통도 없기 때문이다.
- ❸ 우리는 고통을 참을 수 있다. 고통의 인내나 쾌락의 절제가 종국에는 더 고양된 쾌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❹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타락시아(정적인 영혼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욕망과 헛된 욕망의 구별>

- ㉠ 행복을 위한 것들 : 우정, 철학 등
- ㉡ 신체의 고통의 부재를 위한 것들 : 체온 유지 등
- ㉢ 생명 자체를 위한 것들 : 배고픔과 목마름, 의식주 등

1. 자연철학(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핵심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자연철학의 핵심은 자연세계의 원리와 법칙 탐구를 통해 도달한 반정신주의적 다원주의 철학이며 자유의 철학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의 다양성 (재)생산의 원리를 반자연주의 철학자들처럼 존재, 일자, 전체로 보지 않고 원자들의 분리와 배열, 해체와 구성, 밀도와 힘의 운동으로 간파하였다. 다양한 것을 생산하는 원리로서의 자연은 자연 고유의 구성 요소인 원자들, 입자들을 일자로 환원하거나 전체화하지 않는, 끝이 없는 합(합)들이다. 그런데 일자가 다양한 것을 생산한다면 일자와 다른 것은 무(無)로부터만 유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만 타당하고, 전체가 다양한 것을 낳는다고 한다면 전체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상호대립하면서 서로 변환이 가능할 경우에만 그러하다. 이 두 경우 모두 존재가 무(無)로부터 유래한다는 가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긴다’는 대전제에 어긋나므로 타당하지 않다.

우주의 다원성 세 차원 :

- ① 특수성 : 종적인 특수성
- ② 개체성 : 개체의 개별성
- ③ 이질성 : 개체 내의 구성요소.

☞ 자연의 원리 :

‘자연 전체는 물체와 허공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의 세계 속에서 자연적인 다양성은 종들의 다양성, 하나의 동일한 종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다양성, 한 개체를 이루는 부분들의 다양성이라는 상호 교차하는 세 측면 아래 나타난다. 말하자면 특수성[종들을 구분케 하는 각각의 종에 고유한 성질], 개체성[개체들을 구분케 하는 각각의 개체에 고유한 성질], 이질성[부분들을 구분케 하는 각각의 부분에 고유한 성질]의 세 측면 아래 자연적인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중략] 결국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 아래에서 세계들 자체의 다양성이 다음과 같이 추론된다. 종종 서로 다른 종들로 구성된 세계들이면서도 때로는 유사한 세계들, 그러나 언제나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세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추론을 하는가? 자연은 다양한 것의 원리로서, 다양한 것의 생산 원리로서 사유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다양한 것의 생산 원리는 오로지 원리 자신이 자기 고유의 요소들을 그 어떤 전체 속에 다시 모으지 않을 경우에만 의미를 지닌다.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가 다양한 것의 원리는 그 자체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같은 주장 속에는 원[전체와 그 속에 다시 모인 요소들 사이의 순환을 형상화한 원]이란 없는 것이다. 에피쿠로스적 논제는 원과 완전히 다르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것의 생산으로서의 자연은 일종의 끝이 없는 합일 수만, 즉 자기 고유의 요소들을 전체화하지 않는 합일 수만 있다. [중략] 자연은 모으지 않고 분배한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운명에 의한 맺어짐들”에 반대되는 “자연에 의한 맺어짐들”로서의) 자연법칙들은 스스로를 전체화하지 않는 부분들을 분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속사적이 아니라 연언적이며, 따라서 자연은 “이다”가 아니라 “그리고” 속에서 표현된다.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다. [중략] 왜냐하면 자연은 자신들끼리 서로 제한을 가하면서 서로를 무한성으로 정립하는 그런 충만과 공백, 존재와 비존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 루크레티우스와 자연 = ㉠다양성 + ㉡합일 + ㉢전체가 아님

㉠다양성 : 근원이나 계열이 다양하다. 인과계열의 다양성 ↔ 근원이 하나다는 일자철학.
자연은 클로나멘(편위)으로 유목적 분배자.

㉡합일 : ‘그리고’의 연접적 방식의 전체. [원자들 + 허공/공백]

㉢전체가 아님 : 항상 다른 또 하나가 있다. 신 같은 일자는 추상의 산물이다.

2. 자연철학의 7가지 원리

자연주의 철학은 다양한 것의 생산을 “자연의 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결코 전체화할 수 없는 구성들과 결합들”이라는 엄격한 인과율로 설명한다.

① 원자는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 사유대상이다. 감추어져 있는 원자들을 사유하는 에피쿠로스적 방법 2가지.

방법1) 유비의 방법 : 분리불가능한 대상은 감각되는 최소치와 사유되는 최소치로 나뉜다.

$$\begin{array}{ccc}
 & <\text{유비}> & \\
 \text{감각적인 대상} & = & \text{원자(사유의 대상)} \\
 \text{감각적인 최소치} & \leftrightarrow \text{이동} & \text{사유되는 최소치}
 \end{array}$$

☞ 세계 운동의 대상 : 실험과 관찰 도구가 미발달된 시대에 감각 경험을 통해 비감각 세계를 유비적으로 추론하는 시대에 경험적 연관성을 유비적으로 연결시켜 찾아가는 방법. 감각의 임계치(감각적인 일정 크기)가 원자이다.

방법2) 이동 또는 옮겨가기의 방법 : 감각적인 대상을 사유의 대상 이미지와 유비하면서, 감각적인 대상을 해체하면서 사유의 대상으로 구성함에 따라 “옮겨가기의 방법을 통해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사유되는 것으로 그리고 사유되는 것으로부터 감각적인 것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각적인 것과 사유되는 것 사이를 경험적인 연관성을 통해 유비적으로 연결시켜 찾아가는 가는 방식으로 사유함으로써,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지각과 그것에 대한 사유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여, 감각적인 것의 실재성을 있는 그대로 지각함은 물론 사유되는 대상의 그대로를 표상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② “원자들의 합은 무한하다. 원자들은 스스로를 전체화하지 않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원자들의 종류나 배열방법이 아니라, 원자들의 수가 무한할 뿐만 아니라 공백과 원자들의 합 그 자체 또한 무한하게 되도록 분배된다.

③ “원자들은 낙하하면서 서로 만나는데, 이때의 만남은 그들의 무게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편위 때문이다.” [공백 속에서 등속도 수직낙하 직선운동 → 편위 : 원자의 직선운동을 벗어나게 하는 돌발적인 운동(원자에 내재하는 본래적인 자기내재적인 이탈.생성의 경향 = 편위)]

“편위는 원자의 운동 방향에 대한 본원적인 결정이자, 운동과 운동 방향의 종합이다. [편위와 함께 이야기되는] “불확실한”은 비결정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극소수의 아주 작은”, “확실히 않은 시간 속에서”, “가장 작게 나누어진 것으로”는 **사유 가능한 연속적인 시간의 최소치보다 훨씬 더 작은 시간 속에서**를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편위가 그 어떤 우연도, 그 어떤 비결정도 나타내지 않는 이유**이다. 그것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원자의 법칙**을 나타낸다. 즉 **그것은 원인들 또는 인과적 계열들의 환원이 불가능한 복수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원인들을 전체 속에 다시 모으는 일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65~66쪽)

☞ 원자의 법칙으로서의 편위(기울어짐/빗나감/일탈) = 불확실한/지정할 수 없는 극미시적인 내재적인 복수성 운동(우연적이거나 비결정적인 운동이 아님 + 일자나 전체로 묶을 수 없음)
가. 발생하는 자리 : 감각과 사유의 최소치에 너머에서 발생한다. 불확실성.
나. 인과 필연성이나 우연성이나 + 의지 문제 :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논쟁.

㉠ 공통점 : 편위의 운동은 인과 필연적이다.

㉡ 차이점 :

- **에피쿠로스학파** : 원인들의 합일을 거부함. 그렇다고 해서 우연성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편위는 존재/필연에서 우연, 우발성이나 비결정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생성으로, 즉 인과적 계열들의 환원이 불가능한 복수성으로 간다. “편위는 그 모습 그대로 한에서의 **인과적 계열들이 보여주는 독립성과 다수성에 대한 긍정**이라는 의미에서만 우연적인 것이다.”(66쪽)

- **스토아학파** : 운명을 긍정함, 즉 원인들 사이에서 원인들의 합일(수렴되는 일자나 전체의 필연성)을 긍정함.

인간의 편위는 의지, 성향이다. 편위의 의지의 자유 : 초월론적 근거(그 이후 행동의 근거)로서의 자유.

에피쿠로스의 쾌락 : 고통의 중지(행복의 척도.상태/고통량의 정도). 고통의 완전 소멸시 쾌락의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쾌락과 욕망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상태에서는 더는 쾌락이 증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는 까닭은 자연적 본성과 그에 따른 필요가 아닌 인위적이고 헛된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 **에피쿠로스학파의 윤리학** : 쾌락을 끝없이 증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짜 무한을 지칭하는 것이다. 쾌락의 진짜 무한/진무한으로 쾌락의 가짜 무한/악무한을 깬 때어야 인생의 행복 실현 곧 윤리 실현은 가능하다.

㉣ “원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지닌다.” 원자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다면 무한한 생성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각적인 최소치인 원자의 크기와 모양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크기와 모양의 원자들이 무한히 존재한다.

㉤ 원자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한다. 종들의 다양성, 개체들의 다양성, 부분들의 다양성은 무차별적이고 우연적인 결합의 결과가 아니다. 원자들은 서로 맞는 것끼리 결합하고 맞지 않는 것들은 되튀거나가거나 해체된다.

⑥ 유한한 모든 결합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많은 결합으로 다양한 것이 생산된다. 자연의 모든 복합체(신체)들에서 보이는 원자들 간 결합의 무한성(무한한 다양성). 크기, 모양, 무게 등 유사한 특징들을 지닌 원자들이 스스로 모여 하나의 복합적인 신체(사물-다양체)를 구성하는 결합을 한다. 즉 각각의 신체는 이질적인 원자들이 특징들의 유사성을 따라 스스로 분배되어 결합하고 구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철학은 다양한 것이 다양한 것 자신과 갖는 이질성 그리고 다양한 것이 다양한 것 자신과 갖는 유사성을 동시에 말한다.”(69쪽)

⑦ 생산된 다양한 것(신체, 복합체)을 재생산하는 다양한 것의 힘이 있다. 다양성을 재생산하는, 따라서 유사성을 생산하는 힘은 다양한 것의 힘(신체의 힘)과 다양한 것을 생산하는 힘(원자들의 힘)이다.

<현세 내부에 있는 신체들의 재생산/복원 원리>

㉞ 이미 구성된/결정된 환경들 : 같은 모양의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모은 것들로서의 결정된 환경은 그 신체를 재생산할 소질을 지닌 모태(母胎)로서 작용한다. 이때 재생된 신체(다양한 것)의 유사성은 모태들의 범신론을 형성한다.

㉟ 결정된 요소들 : 신체 요소들의 부단한 상실과 충원과정 속에서 신체를 생산하는 결정된 요소들은 일종의 씨앗들로 작용한다. 이때 재생산된 신체(다양한 것)의 이질성은 싹들의 생기를 형성한다.

3. 에피쿠로스학파의 윤리학

① 감각 세계-유한 : 여러 가설의 성립 + 정답 확정 불가능성

② 원자의 사유 세계-무한 : 절대적 보편성에 도달 가능함. 참된 무한 = 실재/원자의 세계

무한과 관련한 절대적 보편성의 형식에서는 물리학이 윤리학 또는 실천에 종속되는 수단인 것처럼 나타난다. 물리학과 윤리학은 다른 차원이지만, 윤리적 실천은 물리학이 밝혀낸 참된 무한을 통해서만, 즉 거짓된 무한을 벗어날 수 있을 경우에만 자기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윤리학-실천** : 윤리적 실천의 목적과 대상은 쾌락이다. 거짓무한을 고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 쾌락에 이르는 작은 장애물이 고통이라면, 정말로 큰 장애물은 거짓 환상, 맹목적인 신앙 등 영혼의 혼탁이나 온갖 걱정과 두려움 등의 공포이다. 인간은 구체적인 이유로 고통받기 전에 고통보다 훨씬 더 심오한 마음의 혼란이나 두려움으로 더 고통받는 것이다.

<영혼 혼탁의 기원-인간의 조건>

㉗ **쾌락과 영혼의 무한성 측면** : 신체로부터 오는 환각, 즉 쾌락을 누리는 무한능력의 환각 - 쾌락과 영혼의 무한성이라는 잘못된 관념으로 더 큰 쾌락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㉘ **고통의 무한성 측면** : 무한한 지속의 관념 - 죽음 이후의 고통 지속의 환상 : 죽음은 만날 수 없는 사건인데 환각 때문에 죽음, 죽음 이후의 고통을 지각하게 된다.

☞ 무한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끝없는 욕구에 대한 죄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산꼭대기에 돌을 올려놓으면 다시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돌을 무한히 밀어올려야 하는 시지프스 신화, 독수리가 간헐적으로 부단히 간을 쪼아대는 징벌을 받는 티티오스 신화.

이러한 영혼의 혼탁으로 대책없이 넘겨진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자 이중의 환각이 낳은 생산물이다. 여기에 저항할 그 어떤 수단도 없다. 왜냐하면 영혼의 혼탁은 살아서는 탐욕과 함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고, 아울러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욕구나 감각된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환각적인 반응으로 인한 영혼 혼탁의 원리, 이러한 환각의 원리는 무엇인가. 루크레티우스에 따르면, 이는 시물라크르들, 즉 감각되기 이전의 복합적 신체(대상)들의 원자들에서 유출되는 것들, 방사되는 것들(이들은 대상의 표면이나 심층으로부터 대상의 외적인 형태를 재생하거나 내적인 질을 옮기는 원자들이 끊임없이 떨어져 나온 것들이다), 곧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파편들이다. 이런 것들은 실재적인 대상들은 아니지만 그 어떤 실재성을 지닌 것들이다. 인식론적으로 거짓 무한의 발생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반플라톤주의의 구조 :

[대상(복합적 신체) → 유출물·방사물(의 변형) → 감각된 것·착각·오류의 원인/주관의 태도]

☞ **시물라크르들의 지각** : 청각, 미각, 후각의 원인들인 물체의 표면에서 분출·발산되는 입자들 → 정신(사유)의 주의집중으로 이들을 개별적으로 지각함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시물라크르들 속에 몸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물라크르들에 의거하여 지각하고, 꿈을 꾸며, 욕구하고, 행위한다. 이러한 환상들은 실재적인 대상도 아니요 물리적인 대상도 아니지만, 이 환상들이 지니는 그 어떤 물리적인 실재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말하자면 환상들은 자신들의 상태, 자신들이 건너야만 하는 거리, 자신들이 받아들인 변형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되어야 할 것을 이러저러하게 지각될 수밖에 없는 그대로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본다면 잘못된 시물라크르들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물라크르들 고유의 상대적인 성질들을 감각적이고 절대적인 대상에 부여하는 우리의 반응 속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무한에 연관된] 환각 또한 결코 시물라크르들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 속에, 즉 완전히 환상적인 욕구와 근심을 우리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우리의 반응 속에 있다. [중략] 시물라크르들의 방사가 이처럼 지각 가능한 시간의 최소치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된 무한의 근원을 이룬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 속에 무한의 이미지를 자리잡게 하고 또 이 무한 자체 속에 근심이나 처벌의 이미지를 자리잡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루크레티우스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욕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욕구는 실재적인 대상을 소유하거나 흡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시물라크르들만을 즐길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이런 욕구는 무한하기를 희망하는 자신의 쾌락 속에서 자기 고민과 괴로움을 인식하게 된다. 신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들과 관련된 우리의 괴로움은 이처럼 우리에게 춤추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물라크르들, 끊임없이 갱신되면서 무한을 재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물라크르들 위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약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들의 목소리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75~79쪽)

“그 첫 번째 측면으로, 개념들의 창조로 정의되는 철학은, 개념과는 구별되면서도 개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내포한다. 철학은 개념의 창조이며 동시에 구도의 설립이기도 하다. 개념은 철학의 시초를 이루지만, 구도는 철학을 설립한다. 물론 구도란 어떤 입안, 초안, 목적, 혹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철학의 절대적 토양, 그것의 대지, 혹은 탈영토화,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은 바로 내재성의 구도이며, 그 위에서 철학은 그의 개념들을 창조한다. 개념을 창조하여 구도를 설정하는 것, 이 둘은 마치 두 개의 날개 혹은 두 개의 부주(浮舟)처럼 모두 필요하다. [중략]

그리스인들은, 카오스를 일종의 구도(構圖)의 방식으로 재단한 우주적 환경 안에 질서가 엄격하게 내재한다는 생각을 품었던 최초의 사람들일 거라는 것이다. 그러한 선별체로서의 구도를 로고스(Logos)라 부른다면, 이 때의 로고스는(세계는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때와 같은) 단순한 ‘이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성이란 단지 하나의 개념일 뿐이며, 구도와 그 구도를 가로지르는 무한한 운동들을 정의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개념이다. 요컨대, 최초의 철학자들은 카오스에 걸쳐진 하나의 선별체로서 내재성의 구도를 설정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종교의 인물들이나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자들과는 대립한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윤정임 옮김, 현대미학사, 64~66쪽)

☞ 철학의 두 날개 = 개념의 창조 + 구도의 설정 :

철학적 사유는 카오스와 대결하여 카오스를 선별하는 내재성의 구도잡기

“철학은 세 개의 요소들을 제시한다. 이 세 요소의 각각은 나머지 두 개와 조응하지만, 각 요소는 또한 그 자체로서 고찰되어야 한다. 철학이 설정해야 하는 선철학적인 구도(내재성), 창안하고 생명을 부여해야 하는 선철학적 인물 내지는 인물들(주장), 창조해야 하는 철학적 개념들(일관성)이 그 세 요소들이다. 즉 설정하고 고안하고 창조하는 일, 이것이 곧 철학의 삼위 일체를 이룬다. 이는 도식적이고 인격화된 강조적인 특징들이다. 개념들은 여러 그룹들로 나뉘며, 이에 따라 개념들은 그것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동일한 구도 위에 펼쳐지면서, 서로 공명하거나 움직이는 교량을 놓는 구도들에는 여러 과(科)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무한한 운동들은 서로 포개지며 곡선의 변주들을 구성하거나 반대로 구성 불가능한 다양성들을 선별한다. 인물들에는 유형들(이)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도 상에 동일한 그룹 안에서 적대적이기조차 한 마주침의 가능성들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이 동일한 그룹인지, 과인지 혹은 동일한 유형인지를 규정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어떤 ‘취향’(goût)이 필요하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윤정임 옮김, 현대미학사, 113~114쪽)

☞ 철학의 삼 요소 :

- ① 구도의 설정 : 내재성의 구도 설계-이성
- ② 선철학적 인물들의 고안 : 인물들의 창안/주장-상상력
- ③ 개념의 창조 : 철학적 개념들의 일관성-지성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취향이다. 취향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요구를 일치시키는 규율과도 같다.

4. (자연주의) 철학의 사명과 목적

☞ 철학의 사명/목적 : 자유로운 인간의 이미지를 세우는 일

+ 신화(이데올로기)의 고발/관습과 권리와 규약의 불합리점 비판

“이처럼 거짓된 무한이 영혼의 혼탁의 원리를 이룬다. 자연주의 철학의 사변적인 대상과 실천적인 대상으로서의 과학과 실천은 그들이 언제나 거짓된 무한을 고발하고, 종교와 무한을 고발하며, 거짓된 무한을 표현하는 모든 신화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철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있나?”라고 묻는 이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인간의 이미지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능력을 그냥 눌러 앉히기 위해 신화와 영혼의 혼탁을 필요로 하는 모든 힘을 고발하는 일에 도대체 철학 말고 그 누가 최소한의 관심으로도 보이고 있는가? [중략] 그러나 자연은 신화에 대립한다. 루크레티우스는 인류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상책의 법칙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관습, 규약, 발명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산업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인간의 불행은 이런 것들에 섞여 들어가 있는 신화로부터 오는 것이며, 마치 자신이 만드는 작품 속에 그 무엇을 도입하듯 인간이 자신의 사유 속에 도입하고 있는 거짓된 무한으로부터오는 것이다. 실제로 언어의 기원에 그리고 불의 발견과 최초의 금속의 발견에 그 원리에 있어서 신화적인 그런 왕권과 부유함과 사유권이 맞물려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본다. 또 권리와 정의의 규약에 신들에 대한 믿음이 맞물려 들어가 있고, 청동과 불의 사용에 전쟁의 전개가 맞물려 들어가 있으며, 예술과 산업의 발명에 사치와 광란이 맞물려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본다. 인간 속에서 신화로 되돌아오는 것과 자연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구분하는 일, 그리고 자연 자체 속에서 진정으로 무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 바로 이것이 자연주의의 실천적인 대상이며 사변적인 대상이다. 최초의 철학자는 자연주의자이다. 그는 신들에 관하여 논하지 않고 자연에 관하여 논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연으로부터 그의 모든 긍정성을 빼앗아갈 새로운 신화를 철학에 도입하지 않는 일이 그의 과업으로 작용한다. 운명이 그릇된 물리학에서 비롯된 신화인 것처럼, 그리고 존재, 일자, 전체가 신학에 물든 그릇된 철학에서 비롯된 신화인 것처럼 활동적인 신들은 종교에서 비롯된 신화이다.” (79~80쪽)

5. 자연주의 철학의 의의

자연철학자들의 근본적인 질문, 원초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사물들의 참모습은 무엇인가’(최초의 운동 원인이 무엇인가, 모든 물체들을 형성하고, 모든 존재들로 변형되는 감각적 원소들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의 무한 속에서 무엇이 참된 무한이고 무엇이 거짓된 무한인가’이다.

첫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출된 세계/우주/자연 전체의 다양성의 참모습은 다음과 같다. 원자의 결합이 보여주는 세 가지 다양성, 즉 자연 전체를 이루는 다양한 종들, 종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들, 개체를 이루는 다양한 부분이라는 다층적인 다양성, 그리고 하나의 신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간에는 이질성(다양성)과 유사성이 공존한다. 또, 하나의 신체(사물)는 이질적이고 유사한 원자들이 묶인 복합체/다양체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존재자는 이질적인 복수성을 잠재적으로 접거나 현실적으로 동시에 펼치고 있는 생성의 운동을 하고 있는 복합적 신체(다양체)이다.

☞ 내재성/잠재성/주름/표현/사건의 철학. 초월론적 경험론. 존재의 일의성.

؛ 들뢰즈의 초월론적/선험적 경험론(transcendental empiricism) : 현실적인 존재들·경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잠재적인 것들(주체와 대상의 의식 이전의 잠재성, 차이 자체·카오스·직접적으로 주어진 비인칭적·전반성적 객관적인 감각덩어리-내재성)이라는 뜻. **차이 자체의 반복.**

*‘초월론적/선험적(transcendental)’이란 칸트의 용어로 ‘~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존재’라는 뜻으로 너머의·이전의 것(초월성) + 그 이후의 (내적) 근거(내재성)를 동시에 의미한다.

둘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짓된 무한이자 영혼의 혼탁을 나타내는 신화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참된 무한(감각의 대상이 아닌 사유의 대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연주의 철학은 거짓 무한의 신화로부터 비롯된 초월성의 사유를 고발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부정하여 일자나 전체로 환원하는 부정성의 정신을 박탈하고 사유와 감성을 긍정한다. 철학사에서, 루크레티우스로부터 둔스 스코투스, 스피노자, 니체에 이르는 자연주의 철학은 내재성의 철학이자 실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의 철학이며 자기 역능을 증대시키는 기쁨의 철학이다.

“자연주의가 지니는 가장 깊은 불변의 성격들 중 하나는 그 자체가 슬픔인 모든 것을, 슬픔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자기 능력의 실행을 위해 슬픔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고발하는 일이다. 루크레티우스로부터 니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주의의 바로 이러한 동일한 목적이 추구되고 도달된다. 자연주의는 또 사유와 감성을 긍정으로 만든다. 자연주의는 부정적인 것의 권위를 공격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박탈하며, 부정적인 것의 정신에게는 철학에서 말할 권리가 없음을 밝힌다. 감각적인 것을 외양으로 만든 것도 부정적인 것의 정신이요, 가지적인 것을 일자 또는 전체 속에 끌어모은 것도 부정적인 것의 정신이다. 하지만 이때의 외양이 감각 작용의 무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의 전체와 일자는 사유의 무에 불과

한 것이었다. 루크레티우스에 따르면 자연주의는 모든 요소가 결코 한꺼번에 구성되지 않는 무한한 합에 대한 사유이지만, 역으로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더해지지 않는 유한한 복합체들에 대한 감각 작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두 방식을 통해서 다수가 긍정된다. 즉 다양한 것이 그 자체 다양한 한에 있어서 기쁨의 대상이 되며, 마찬가지로 다수가 그 자체 다수인 한에 있어서 긍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 무한이 자신의 요소들을 전체 속에서 구성되지 않은 합에 대한 가지적이고 절대적인(따라서 완벽한) 규정이라면, 유한 그 자체는 구성되는 모든 것에 대한 감각적이고 절대적인(따라서 완벽한) 규정이다. 말하자면 유한과 관련된 순수 실증성이 감각의 대상이라면, 진정한 무한과 관련된 실증성은 사유의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시각 사이에는 그 어떤 대립도 있을 수 없다. 반대로 그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루크레티우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주의의 결과를 확립했다. 즉 그는 자연과 관련된 실증성을, 긍정의 철학으로서의 자연주의를, 다수의 긍정에 연관된 다원주의를, 다양한 것의 기쁨에 연관된 감각론을, 그리고 모든 신비화[신화화]에 대한 실천적인 비판을 확립했던 것이다.” (79~80쪽)

☞ 자연주의 철학의 특징 :

- ① 자기 능력의 실행을 위해 슬픔을 필요로 하는 초월적 사유를 고발하는 일을 한다.
- ② 사유와 감성을 긍정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자연주의는 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성의 정신을 비판하고, 다양성의 긍정과 그로 인한 기쁨을 받아들이는 긍정과 기쁨의 철학이다.